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조화롭게 생활함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초기의 후기 성도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는 그저 평화로운 가운데 그들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곳으로 이주해 가든, 평화는 그들을 피해 갔다. 미주리 주에 집합 장소가 헌납된 지 꼭 2년이 되던 1833년에, 폭도들은 성도들을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 강제로 내몰았다.(281쪽 참조) 교회 회원들은 미주리 주 클레이 군에서 일시적으로 피난처를 찾았으며, 그 후 1836년에 북부 미주리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은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주 입법부에서 새로 조직한 클레이 군에 정착했다. 군 소재지였던 파웨스트는 곧 번성하는 후기 성도 정착지가 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계속 살았지만, 1838년 1월에 그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파웨스트까지 1,448킬로미터를 여행하여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합세했다. 1838년 후반에는 대부분의 커틀랜드 성도들이 집을 팔거나 집에서 추방당했으며, 선지자를 따라 미주리 주로 왔다. 그 지역으로 밀려들어오는 교회 회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선지자는 파웨스트 근처에 성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을 몇 군데 지정했다. 1838년 7월에는 파웨스트에 성전을 위한 초석이 헌납되었고 그로 인해 성도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정착지를 세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클레이 군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한 긴장감으로 인해 그들은 곧 그 지역 주민들과 대립하게 되었으며, 1838년 가을에는 폭도와 군대가 다시 한 번 후기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선지자가 파웨스트에 있는 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중이었는데, 무장한 민병대가 들어닥쳐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죽이러 왔다고 했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무장한 민병대들이 조셉 스미스를 체포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그는 "매우 상냥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다. 선지자의 모친인 루시 맥 스미스는 조셉의 화평케 하는 은사를 이렇게 묘사했다.

“조셉은 매우 상냥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가 범죄자나 부끄러운 위선자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태도로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은 마치 유명이 그들 앞을 지나가기라도 한 듯 멈추어 바라보았다.

“조셉은 자리에 앉아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몰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가진 견해와 생각,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 왔으며, 교회를 처음 조직한 이래로 적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아 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들에게 몰몬들이 미주리 주에 들어온 이래로 악의와 비난이 그친 적이 없으나 자신이 아는 한 몰몬들은 결코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법을 어겼다면 그들은 법에 의해 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눈 후에 그가 일어서서 말했다. ‘어머니, 전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에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두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동행하면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조셉은 감사를 표하고 함께 나갔다.

“나는 그들이 나간 뒤에 문가에 서 있던 나머지 장교들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첫째 장교: ‘스미스가 자네 손을 잡았을 때 이상한 느낌 안 들었나? 난 그런 느낌은 생전 처음이었네.’

“둘째 장교: ‘난 꿈쩍도 할 수 없었다네. 온 세상을 준다 해도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해치고 싶지 않네.’

“셋째 장교: ‘다시는 조셉 스미스나 몰몬들을 죽이자고 나를 데리러 오지 말게 ...’

“나의 아들과 함께 간 사람들은 가서 그들 휘하에 있는 군대를 해산시켜 집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조셉이 그들을 필요로 할 경우 돌아와서 어디든 그를 따라가겠다고 했다.”¹

진리에 대해 온화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서, 조셉 스미스는 편견과 적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적이었던 많은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었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큰 조화와 사랑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그러므로 국가이든, 하나의 주이든, 지역 사회나 가족이든,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사랑스러운 하늘의 자녀! 똑같은 위대한 부모에게서 오는 빛과 같은 평화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활기를 주며,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줍니다. 그것은 땅에서는 행복의 근원이며, 하늘에서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자신의 온 몸과 정신의 힘, 자신의 온 영향력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며,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그리고 주와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영예를 위해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자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여성의 친구가 되거나 정부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몸의 중추 기관을 갉아먹는 해충이며, 자신의 몸에서 먹이를 찾는 독수리요, 인생에서 자신의 전망 및 번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기쁨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지역 사회는 지상의 지옥에서 멀지 않으며, 자유로운 자들의 승인이나 용감한 자들의 칭찬을 받기에 부적합한 존재들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 오 그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교리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적십니다. 그것들은 목초 위에 내리는 부드러운 안개 같으며, 풀 위에 내리는 온화한 비와 같습니다.

“활기, 덕, 사랑, 만족, 박애, 인자, 연민, 인간애와 우정은 삶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조금 부족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와 규칙과 규정의 계시에 따라 권능, 특권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면서, 단합 가운데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의로운 우정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의 숨결이 가



산상수훈에서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득한 달콤한 향기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성별된 기름에서 나는 진한 향, 또는 아라비아의 향기가 나는 들판에서 피어오르는 감미로운 향기와 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음성은 참으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체의 음악 같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두려움을 잠재우네
 그것은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고
 사람을 더 값진 진주로 향하게 하네”²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간의 사랑을 계속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정복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쓰면서 온유함으로 행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화평의 일에 힘쓰십시오. (로마서 14:19 참조)”³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 덕을 행하는 이성고 고상함, 그리고 악에 대응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 무력예의 호소 또는 친구와의 격한 논쟁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탁월한 방법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 그렇

다면 우리의 좌우명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자!' 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면, 그 기쁨에 대해 온 세상이 거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이유를 부여하도록 합시다.”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⁵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결점 찾기를 거부함으로써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로의 감정에 대해 주의 하고, 사랑 안에 걸으며, 자신들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기를 바랍니다.”⁶

“올바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덕을 칭찬해야 하고, 그의 등 뒤에서 결점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⁷

“이 세상에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야심차며 남보다 뛰어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높여 주려고 합니다.”⁸

“십이사도와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숨기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높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자만심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고 하지 말며, 다만 서로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형제를 존중하거나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비방하지 말고 파멸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⁹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서 험담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 그리고 속좁은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고자 한다면, 겸손하십시오. 덕과 사랑의 모든 원리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며, 여러분은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여러분의 문 안에 있을 것이며 번영이 여러분의 경계 안에 있을 것입니다.”¹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신앙개조 제11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¹¹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사람이 양심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올바른 원리로 간주하며, 이 원리의 참뜻을 모든 개인이 적절히 숙고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가장 값진 은사의 하나로 인류에게 부여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우리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¹²

“저는 모든 종파, 당파, 교파에 대해 가장 관대한 느낌과 자애의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성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며, 저와 견해가 다른 어떤 사람도 경멸하지 않습니다.”¹³

“성도들은 제가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몰몬’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저는 당당히 하늘 앞에서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 외 다른 종파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기 성도들의 권리를 짓밟는 논리는 로마 가톨릭교의 원리,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너무 약한 다른 종파의 권리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모든 인류의 사회적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사랑은 제 영혼을 고취시켜 줍니다. 자유에 대한 사랑은 제 할아버지께서 저를 무릎에 앉히고 놀아 주셨던 그 옛날부터 제 영혼 구석구석으로 퍼졌습니다. ...

“만일 제가 인류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들을 억눌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 방식이 낫다고 설득할 수 없다면 저는 그들을 그들의 방식으로 높이 들어올릴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을 따르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성의 힘으로 설득할 것입니다. 왜냐면 진리 자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¹⁴

“우리는 종교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달리 생각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세상의 형제들에 대해 때때로 매우 이상하게 표출되며,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편견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의 것입니다.”¹⁵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고결한 특성들을 볼 때, 신조 및 교리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그러한 특성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은 자유롭거나 마땅히 자유로워야 하며,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특권을 존중하는 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천부의 권리, 자연 법칙, 그리고 자기 보호의 높고 고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리에 진심으로 찬성하며 또한 그것을 실천합니다.”¹⁶

“모든 사람은 선택의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으며 그들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이 생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그분의 오른편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이 생에서 추구함으로써 선한 것을 얻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세상에서는 그 영혼이 정죄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상실을 가져오는 악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빼앗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스겔서 33:2, 3, 4, 5)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충실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¹⁷

“그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원리 중 하나이며,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익혀 온 것입니다. … 저는 약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¹⁸

“그 누구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모든 정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모든 법률과 정부는 그 종교가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종교를 허용하고 보호해야 합니다.”¹⁹

“우리는 … 모든 사람과의 평화와 우정을 촉진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크게 성공하고 존중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²⁰

“저는 누구에게도 결코 저의 교리를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 편견이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인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한 원리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기쁩니다.”²¹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조셉 스미스가 민병대와 대화를 나누었던 이야기를 복습한다.(339~341쪽)
여러분은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유지한 사람들을 보았던 때를 생각해 본다.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 선지자가 평화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와 문구들을 찾아보면서 342~343쪽을 복습한다. 우리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44쪽 둘째 단락을 읽는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으려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고결한 특성들을 찾으려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을 칭찬할 때 그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344쪽 셋째 단락을 읽는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서로를 높여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 주기 위해 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한 행동은 어떤 면에서 평화로 이어지는가?
-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찾아보면서, 344~346쪽을 복습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46쪽 마지막 단락을 읽는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회복된 복음을 나눌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에베소서 4:31~32; 모사이야서 4:9~16; 제4니파이 1:15~16; 교리와 성약 134:2~4, 7

주

1. Lucy Mack Smith, “The History of Lucy Smith, Mother of the Prophet,” 1844~1845년 원고, book 15, 8~10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History of the Church*, 6:245~246; 현대화된 구두법 및 문법: "A Friendly Hint to Missouri"에서, 조셉 스미스의 지시 하에 쓴 기사, 1844년 3월 8일,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4년 3월 15일, 473쪽.
3.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오하이오 주 톰슨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 1833년 2월 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Letter Book 1, 1829~1835년, 26쪽, Joseph Smith, Collection, 교회 기록 보관소.
4. *History of the Church*, 6:219~220; 단락 구분 변경: "Pacific Innuendo"에서, 조셉 스미스의 지시 하에 쓴 기사, 1844년 2월 17일,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4년 2월 15일, 443쪽; *Times and Seasons*의 해당 호는 뒤늦게 출판되었음.
5. *History of the Church*, 2:122; 1834년 6월 21일, 미주리 주 클레이 군에서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존 링컨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7월, 176쪽.
6. *History of the Church*, 1:368;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이 미주리 주에 있는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와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3년 6월 25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7. *History of the Church*, 1:444;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3년 11월 19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8. *History of the Church*, 5:388; 1843년 5월 14일, 일리노이 주 옐롬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9. *History of the Church*, 3:383~384; 1839년 7월 2일, 아이오와 주 몬트로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10. *History of the Church*, 4:226;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0년 10월 19일, 일리노이 주 나부.
11. 신앙개조 1:11.
12. *History of the Church*, 2:6~7; "The Elders of the Church in Kirtland, to Their Brethren Abroad"에서, 1834년 1월 22일,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2월, 135쪽.
13. 조셉 스미스가 아이작 갠드에게 보낸 편지, 1839년 3월 22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0년 2월, 55~56쪽.
14. *History of the Church*, 5:498~499; 1843년 7월 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15. *History of the Church*, 3:303~304;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9년 3월 20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
16. *History of the Church*, 5:156;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제임스 알링턴 베넷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2년 9월 8일, 일리노이 주 나부; *History of the Church*에는 제임스 베넷(Bennett)의 성이 "Bennett"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17. *History of the Church*, 4:45, 각주; 현대화된 구두법 및 문법; 제일회장단과 고등 평의회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9년 12월 8일, 일리노이 주 커머스,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39년 12월, 29쪽.
18. *History of the Church*, 6:56~57; 1843년 10월 15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19. *History of the Church*, 6:304; 1844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 윌라드 리차즈, 토머스 볼러, 윌리엄 클레이튼이 보고함; 또한 부록 562쪽 세 번째 항목 참조.
20. *History of the Church*, 6:221; 조셉 스미스가 Nauvoo Neighbor의 편집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1844년 2월 10일, 일리노이 주 나부, Nauvoo Neighbor에 게재됨, 1844년 2월 21일; 이 편지는 *History of the Church*에 1844년 2월 19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21. *History of the Church*, 6:213; 현대화된 구두법; 조셉 스미스가 조셉 엘 헤이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4년 2월 13일, 일리노이 주 나부.